

# 80년 춤꾼 인생... “마음이 고와야 춤도 고운법이여”

## 컬처 & 피플

국무

이매방



서울 자택에서 기자를 맞이한 이매방 선생은 허리가 아픈 탓에 침상에 앉아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연신 신음과 웅얼거림을 토해냈다. 젊은 시절 몸을 혹사한 탓에 관절과 뼈마디가 온 신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럼에도 이매방 선생은 지난 8월10일 무대에서 춤을 댔다. 제자들과 함께 한 ‘우봉 이매방 전통춤 공연’이었다.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것 못해서 못했으니 아니라 춤을 댔다. “허리가 아파서 춤은 지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앉아서 댔제. 육자배기 장단에 맞춰 춤춰. 육자배기가 느린 진양조 아닌가. 그것 맞춰서 몇번 놓고 앉아서 한풀이 했제. 관객들이 좋아하더라. 지금도 마음껏 춤추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

‘국무(國舞)’, ‘신이 내린 춤꾼’ 이매방 선생의 예술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족(蛇足)이다. 한 예술인이 평생 하나도 갖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를 두 부문(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제9호 살풀이춤)에서 보유하고 있다. 더 값진 것은 선생이 우리춤을 순정하게 지켜온 예인라는 데 있다. 그래서 제자들의 춤에서 쉬는 게 보이면 육두문자를 곤잘 쓰곤한다. 서양춤 댈새가 날 때다.

“내가 가르친 대로 안하고 요새말로 서양 댈새가 나게 춤을 추니 욕을 할 수 밖에. 우리말에다 서양말 섞어놓으면 맛이 나는가. 웃긴 놈의 세상이며, 춤도 때만가지여. 알아야 면장도 하더라도 뭘 지대로 알고 해야 할 것 아니여.”

선생의 말은 자극히 평범했다. 그럼에도 전국이 그득 배어 나왔고 향이 짙었다. 83년 동안 춤으로 인생을 살아온 경험의 무게는 범접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을 보면 춤 재주를 알아. 보면 알게. 열심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달라. 열심히 해야 춤이 늘고 춤이 몸에 들어간단니까. 한동안 춤(하는) 동 마는 동(하면) 몇 년, 몇 십 년해도 춤이 늘지 않아. 춤하고 인생도 똑같아. 노력하면 늘고 게으르면 늘지 않아. 스승과 제자는 업해야 해. 부모 자식처럼 사랑을 주고 받지만, 가르칠 때는 치밀하게 명심하게 가르쳐야 해.”



### 승무·살풀이춤 ‘무형문화재’

우리 춤 순정하게 지켜온 예인

“관중이 천명이고 만명이고

그 사람들을 잡았다 났다 하며

오장을 속속들이 후벼내고 울려보아

名舞지, 아무나 명무 되는가?”

이매방 선생은 우리춤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 1951년 불과 25살에 전북 군산에 무용연구소를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생은 “가르치면서도 배운다”는 전법을 실천했다. 지난 1948년 북 3개를 놓고 추는 삼고무를 창작했고 5고무, 7고무, 9고무, 11고무 까지 확대했다. 현재 국악계에서 선보이는 삼고무는 이매방류로 분류된다.

승무는 이매방 선생의 트레이드 마크다. 국창 임방울 선생이 마련했던 무대에서 승무를 추기로 했던 주연급 국악인이 공연을 할 수 없게되자 대신 춤을 춘 것이 데뷔무대가 됐다.

“승무는 춤의 뿌리여. 워낙 어려운 춤이기 때문에 배우기 어렵고 힘들어. 무거운 춤이어

서 함부로 보여주지도 않아. 큰 행사서나 춤을 추곤하제. 그만큼 춤이 가치가 있고 무거워.”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 공업학교를 졸업한 이매방 선생에게 춤은 운명이었다. 신나림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무기(舞氣)가 몸에 내린 탓이다. 아버지는 “집안이 망하려고 당골네 놈이 생겼다”며 험담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매방 선생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어머니는 부친 몰래 그를 목포 권번(券番·일제 강점기 기생들의 단체)에 가도록 길을 터주었다.

평생 한 눈 팔지 않고 춤을 취온 이 선생은 몸짓이 아니라 마음이 몸에서 우러나는 춤을 최고로 친다. 심무(心舞)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마음과 정신이 맑고 깨끗한 경지에 있어야 춤이 된다는 얘기다.

“마음이 고와야 춤도 고운법이여. 한국 춤의 아름다움은 정중동(靜中動)에 있어. 우리 몸에서 배꼽이 중이지 배꼽 밑은 정이고 위는 동이여. 한국 전통춤의 멋은 기와지붕이나 한복의 선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이 지. 관중이 천명이고 만명이고 간에 그 사람들을 잡았다 났다 하면서 그 사람들 오장을 속속들이 후벼내고 울려보아 명창(名唱)이니 명무(名舞)니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명창, 명무가 될 수는 없어.”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학교 시절, 매주 월요일 오후 종례시간이 되면 우리 반 친구들은 마음이 바빴다. 오후 6시에 시작되는 일본 만화영화 ‘등장미 소녀 캔디’(캔디)를 보기 위해서다. 흑역 조금이라도 담임선생님이 늦게 교실에 들어 오시면 반장친구는 우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교무실로 달려갔다. 반장의 손에 이끌려(?)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은 “학생이 무슨 만화나”며 꾸중 섞인 목소리로 종례를 마쳤다. 반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짤 끊음으로 교문을 나와 통학버스에 몸을 실었다. 기자 역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TV 앞에 앉아 엄마의 잔소리를 기록했다.

## ‘메이드 인 광주’ 미생을 꿈꾸자

리에도 곳곳하게 캔디를 ‘본방사수’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로 시작되는 캔디 주제가를 따라 부르며 행복해 했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그 시절, 캔디는 요즘 말로 하면 국민만화였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밝고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캔디에 여학생들은 열광했다.

최근 ‘캔디’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강자가 등장했다. 체감인기로 보면 ‘캔디’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바로 웹툰 ‘미생’, 아니 드라마 ‘미생’이다. 동명의 웹툰을 소재로 한 미생은 직장생활의 애환을 사실감 있게 그려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드라마 대열에 들어섰다. 지난 달 17일 케이블 방송에서 첫 방송된 이후 평균 시청률 6.3%, 최고 시청률 7.8%를 찍은 후 공중파 포함 전 연령 남녀 시청률 동시간대 1위

## 나주박물관 ‘영산강 고분 토목기술’ 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재)대한문화재단연구원, 일본 역사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28~29일 이틀간 ‘영산강유역 고분 토목기술의 여정과 시간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영산강유역은 최근 중요한 고고학 발굴조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영암 자라봉 고분, 옥아리 방대형 고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고분에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유지하

기 위해 선조가 사용했던 지혜와 토목기술이 뚜렷이 남아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원후 5~6세기 유적들의 시간 순서와 관련성의 의견을 주고 받는다. 이영철(대한문화재단연구원장), 김낙중(전북대학), 최성락(목포대),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문의 061-330-782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미정**  
동구 금남로2가 (구) 동구청위 옛날구미항  
계절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무등공인중개사**  
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2차뜨란채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임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

**골든보석**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다나베움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인숙촌원)  
호남최고 맞춤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  
홍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 점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062)224-7687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궁뎅이뒤  
대표 성욱희 ☎010-3225-2735

**아담카페식당**  
동구천변우로 405-10(천변지리산주유소에서콜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레 ☎062)224-1541

**아워홀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k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생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무등국밥**  
동구 금남로 2가 (구) 동구청뒷길  
머리국밥, 순대국밥, 내장국밥  
☎062)228-7705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골든전당포**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올레예술회관**  
동구 금남2가 (구) 동구청뒷길  
생고기비빔밥 낙지비빔밥  
갈비탕 소머리국밥  
☎062)222-8653

**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치  
신속한배달카드결제가능  
☎1588-3300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호선갤러리**  
동구 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행복한밥상**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우산공원건너편골목해성유치원옆  
백반, 아구탕, 아구찌,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정지섭 ☎062)252-303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9655-7765

**거금조경**  
북구 두암동 미래아파트 사거리 으뜸주유소옆편  
굴취, 전지, 식재, 벌초, 산일, 이장  
예초정원자연석사주  
대표 소정택 ☎062)268-7709